

SK에너지, 영업이익 4726억원 추정

증권사, 2/4분기 166% 대폭 증가 ... 정제마진 개선에 환율 상승효과

SK에너지는 2/4분기 영업이익이 4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SK에너지의 2/4분기 영업실적 추정치를 집계한 결과,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조3187억원과 472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5.6%, 166.1%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.

황규원 동양증권증권 연구원은 “복합정제 마진이 배럴당 6.0달러로 1/4분기의 5.1달러보다 강세를 보였고, 5-6월 원/달러 환율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정유부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”며 “2/4분기 영업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을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조사대상은 대신증권, 대우증권, 동양증권증권, 미래에셋증권, 삼성증권, 신영증권,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현대증권 등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7/21>